



- ▶ 9월10일 : 제4회 포천시 홀스타인품평회 참관(포천일고교)
- ▶ 9월12일 : 2007 대전 국제축산박람회 참관(대전무역전시관)

- ▶ 9월13일 : 중돈 참가업체 리셉션 (유성 아드리아호텔)
- ▶ 9월14일 : 제8회 전국한우협회 창립 기념식 및 제7회 한우인의 날 행사 (대전갑천둔치)
- ▶ 9월15일 : 경상북도 홀스타인품평회 참관 (경주 황성공원)
- ▶ 9월18일 : 충청북도 홀스타인품평회 참관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 ▶ 9월20일~23일 : 일본 북해도 품평회 참관

직원인사(수습임용) 발령

본회(회장 조병대)는 직원 공개채용을 위한 신규사원 모집에서 전국 축산대학으로부터 17명이 지원하여 1차 서류전형을 통해 각 대학별로 1명씩을 선발한 후 필기 및 면접을 통해 지난 9월17일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10월1일자로 일반직 4명과 기능직 1명에 대해 수습사원으로 아래와 같이 발령하였다. 앞으로 신입수습사원은 3개월간 협회 직원으

로서의 기본 소양교육 및 본회 업무에 대한 다양한 축종별 기초지식 교육을 받은 뒤 교육평가에 따라 적합한 사업부서로 배치받게 된다. 이번 신규채용은 영호남지역의 가축개량사업의 확대 및 대농가서비스의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구분	직원명	발령내용
수습임용	송기선	수습사원(일반직 6급)
"	나희영	수습사원(일반직 6급)
"	문경덕	수습사원(일반직 6급)
"	이종혁	수습사원(일반직 6급)
"	성은주	수습사원(기능직 2급) 한우개량부 등록팀 근무

한우 구이가 가장 맛있어요!

한국소비자 한우고기 선호성향 조사



한국소비자는 수입고기와 한우고기를 비교했을 때 한우고기가 신선도, 맛, 안전성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며 같은 조건의 한우

고기일지라도 탕과 구이, 스테이크 중 구이형태로 요리했을 때 가장 맛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서 흥미를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지역별(서울, 경기, 영남, 호남), 연령별(20-50대), 성별(남·여)로 할당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총 650명)와 관능평가(총 1,300명)를 실시하였다.

소비자 설문조사는 쇠고기 구입 및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조사하였고, 관능평가는 한우 총 30두에서 주요 10부위(등심, 채끝, 설깃, 보섭, 양지머리, 업진, 우둔, 흥두께, 꾸리, 목심)를 선정하여 부위 및 요리방법 이외에는 모두 같은 조건에서 직접 먹어보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요리방법은 3종(탕 600명, 구이 500명, 스테이크 200명)으로 구분하였으며 1회 먹을 때마다 소비자들은 연도(고기 섭취시 부드러운 감촉을 주는 것), 다즙성, 향미 및 전체적인 기호도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결과는 전체적인 기호도 점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신선도(89.39%), 육질(82.48%), 맛(83.39%), 안전성(81.27%), 근내지방도(67.16%) 및 향(68.70%)에서 수입쇠고기보다 한우고기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능평가 결과 소비자의 쇠고기 기호도는 같은 조건의 한우고기일지라도 부위와 요리방법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쇠고기 섭취습관 및 숙성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조수현 031-290-1703>

벨기에 부뤼셀 한·EU FTA 저지 원정투쟁 전개

우리 축산농가·농업인 입장 현지서 호소 전달

브뤼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 3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5일 출정에 나선 '한·EU저지 농민유럽원정투쟁단' (공동단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김동환 양돈협회장, 이하 원정투쟁단)이 지난 17일 오전 9시(현지시각) 협상장인 벨기에 브뤼셀 소재 쉐라톤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을 본격화 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낙농과 양돈산업을 비롯한 축산 농업부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한·EU FTA협상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론몰이용으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원정시위를 통해 낙농사수, 한국농업 사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11시부터 원정투쟁단 대표인 이승호 회장과 김동환 회장은 EU의회 마르코프 국제무역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농축산업계의 한·EU FTA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마르코프 위원장은 "430억 유로 농

업보조를 기초로 농산물 수출국가인 EU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의 농업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연내 타결은 힘들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언급했다.

이어 오후 4시경 협상장 웨라톤호텔에서 한·EU FTA EU측 협상단 가르시아 대표와 면담을 가진 원정투쟁단 대표들은 “EU가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와 멕시코 등과는 육류, 낙농품 등 농산물에 대해 폭넓은 개방예외를 인정한 반면, 우리와의 협상에서는 농업부분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려감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가르시아 대표는 “우리가 FTA를 제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FTA협상을 요구해와 응하게 됐다”며 구체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피해 면담이 지속되지 못했다.

협상단 대표들이 EU 측 인사들과 면담을 갖는 동안 원정투쟁단은 EU본부 앞 슈만라운드 포인트에서 유럽농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개막집회를 개최하고 한·EU FTA저지를 위한 식량주권 및 위기의 한국농업의 현실을 알렸다.

한편 원정투쟁단은 16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 계획 등을 밝히고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 협상이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농민·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한·EU FTA 협상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주같은 농진청 특허 기술, 공짜로 쓸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특허청에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농촌진흥청 개발 82건의

특허기술을 산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산업체로부터 기술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유특허기술 중 산업적 과급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 100종의 기술을 선정한 결과 이 중 82개의 기술이 농촌진흥청에서 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정된 100종류의 특허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21건이 시장성과 기술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중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에서 개발된 「들깨유로부터 α리놀리산(ALA)을 분리, 정제하는 방법」은 시장규모가 1,000억 원 이상에 달해 상용화 가능성, 산업적 과급효과, 시장의 성장성이 가장 뛰어난 기술로 평가되었다.

특허청에서는 잠자고 있는 국유특허기술 중에서 산업적 가치, 기술적 가치, 시장적 가치가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평가한 결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들의 우수성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을 한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고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외국특허로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현재,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총 1,654건에 달하고, 이 중 농촌진흥청이 900건(5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립수산물과학원 119건(7%)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특허청이 2006년 4월부터 도입한 ‘국유특허 무상실시 제도’는 국유특허기술로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산업체가 기술사용료 납부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국유특허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고자 도입되었다.

지난해 특허청에서 국유특허를 업체에 이전하고 받아들인 기술 실시료 중 39%가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특허기술이었으며, 지난해 특허청에서 업체와 통상실시 계약을 맺은 건수도 전체의 49.5%인 102건을 차지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유특허기술의 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윤순강 연구관리과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원의 현장과 밀착된 창의적인 연구자세가 이러한 국유특허기술 개발과 활용, 잠재적 가치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며,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의 개발 기술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청이 선정한 산업가치가 높으면서 무상으로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100종의 국유특허 기술목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알림마당→공개자료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의: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윤순강 031-299-2610〉

내년 축산분야 3541억원 중점 지원

한·미FTA 지원사업, 전년대비 2,097억 증액·축사시설현대화 등 추진

농림부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전년대비 2천97억원이 증가한 3천541억원의 예산을 내년 축산분야에 책정해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부가 발표한 2008 농림예산(안)에 따르면 한·미 FTA 관련사업에는 전년대비 6천375억원이 증가한 1조2천682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축산분야에는 전년대비 2천97억원이 증가한

3천541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FTA와 관련해 경쟁력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축산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515개소를 대상으로 1천2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축종별로는 ▲한우 2.43억원/200개소, ▲양돈 5억원/150개소, ▲양계 4.8억원/75개소, ▲오리 4.2억원/10개소, ▲낙농 4.5억원/80개소에 현대화사업이 추진된다. 축산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 국고 20%, 용자 60%(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사업자부담 20%이다.

또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에 115억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모든 소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는 사육단계 DNA분석도 3만2천두에 시범 실시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개방화에 따른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방침을 세워나가고 있다”며 “축산분야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효과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축산분야 예산안은 ▲축사시설현대화(1천29억원) ▲브랜드육타운(32억원)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지원(20억원) ▲가축개량사업소지원(345억원)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116억원) ▲축산물 HACCP 인증지원(31억원)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27억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149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651억

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414억원) ▲자연순환 농업활성화(323억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총체 벼 로 신도불이 한우를...



휴경 논을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 자원 확보를 위하여 총체보리에 이어 총체 벼의 사료

화가 본격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영주시와 공동으로 9월 17일(월) 사료용 총체 벼 사일리지 조제 기술보급을 위해 '사료용 총체 벼 수확기술과 이용방안'에 대하여 기술교육과 현장 연시회를 개최하였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뤄진 기술교육 시간에는 ▲사료용 총체 벼 시범사업 설명(정창도 과장) ▲우리나라의 양질조사료 확보방안 및 총체 벼 재배 배경(조사료자원과 서성 과장) ▲사료용 총체 벼 재배 및 이용(사일리지 조제)기술과 가축급여 효과(조사료자원과 김원호 박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날 축산과학원 조사료자원과의 서성 과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와 여러 가지 국내의 정세로 인해 2015년까지 25만ha의 논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논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은 사료용 총체 보리나 총체 벼를 재배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료용 총체벼 수확 및 가축급여 효과'에 대

하여 설명한 축산과학원 조사료자원과의 김원호 박사는 “총체벼는 알곡은 농후사료로 잎과 줄기는 조사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종자의 자가생산도 가능하다”며 “총체 벼의 경우 우리나라 종자를 이용, 우리나라에서 재배해 우리 소에게 먹여 완전 신도불이 한우와 우유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박사는 “그러나 가축에게 급여하는 총체벼라고 해서 대충 관리한다면 수확량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날 현장 연시회에 참석한 한 농민은 “현재 생볏짚을 사료로 이용하고 있지만 소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1등급 출현율도 낮은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사료가치가 낮은 볏짚 대신 총체 벼를 이용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조사료자원과 김원호 연구사 041-580-6773)

동물유전자원 보존, 세계가 함께 간다



스위스 인터라킨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164개국의 대표, 국제비정

부기구 및 국제기구들이 모여 가축유전자원의 다양성보존을 위한 동물유전자원 국제기술위원회가 개최됐다.

한국대표로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연성흙 농업연구관을 비롯한 3명이 참석했으며 비정부기구로 전국여성농민총연합에서 2명이 참석했다.

이번 동물유전자원 국제기술위원회에서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5년간 세계적으로 62

개의 품종이 유실된 사례와 함께 세계가 직면한
기아극복과 농촌개발을 위한 동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해 정리한 세계동물유전
자원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동물유전자원보존과 지속적인 활용을 위
하여 UN산하기구인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및
각국이 수행하여야 할 범세계적인 정책지원, 기
술지원 등 총 23개항의 실천계획 및 이의 실행
을 위한 기금의 조성방안 및 국가간 기술협력 및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실천계획에 대하여 동물유전자원이 풍부한 국
가와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간, 그리고 생축이
나 축산물의 수출국과 수입국간 많은 논쟁이 있
었으나, 국가 또는 지역간 수습 차례의 의견 조
율을 거쳐 각국의 합의를 도출했고 이를 토대로
인터라켄 선언을 채택했다.

인터라켄 선언은 각국이 동물유전자원의 보존
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품종에 대한 권리를 상호인정하면서 기
술선진국과 자원부국의 교류를 촉진하여 가축
유전자원 특히 지역품종의 보존 및 지속적 활용
의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라켄 선언은 앞으로 우리나라 가축유전자
원의 보존, 관리,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동인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가
축유전자원시험장 김종대 연구사 063-620-3535>

EU 수준으로 동물복지 개념 적용되면 국내 축 산업 '치명타'

사육환경 개선 불가피 · 생산비용 상승 불보 듯
한 · EU FTA 3차협상에서 동물복지문제가 양
측의 어느 정도 입장이 근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EU수준의 동물복지개념이
적용된다면 축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지
적이다. 특히 동물복지 개념이 도입되면 생산비
가 크게 오르고 소비자 가격까지도 상승해 국내
축산물값 인상에 따른 구매 위축 등으로 국내 축
산업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EU수준의 동물복지 개념이 도입된다
면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증가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축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농진청과 전남대가
공동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사육면적이 돼지는
1.28배, 한우는 2.25배, 산란계는 5.36배로 증가
할 수밖에 없어 생산비용이 크게 늘고 소비자 가
격도 돼지고기 17~53%, 쇠고기 34~95%, 닭고기
16~51%가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동물복지 개념의 도입을 반
대하는 것이 아닌 EU와 국내 축산업의 생산시설
과 여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점진적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시설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는 등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꺼번
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동물복지를 도입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재정적 뒷
받침과 농가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야 가능
한 만큼 단계적 도입을 시험적으로 운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래돼지로 브랜드 돈육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최근 유전자원으로
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재래돼지의 보존과
산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월 20일



(목) 축산자원개발부(성환)에서 '재래돼지 사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재래돼지 사육농가, 관련협회와 산업계, 지역개발기관, 학계 및 관련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 유전자원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 재래돼지의 유전자원 보존과 재래돼지의 분자유전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재래돼지의 사육 및 경영실태와 산업적 활용 사례를 소개하여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한 재래돼지의 산업화 활용 방안과 소비자 기호성 변화에 부응한 차별화된 브랜드 돈육의 생산 및 유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재래돼지 핵심단 조성을 위한 육종체계(축산과학원 김명직 박사) ▲재래돼지의 분자유전학적 특성 연구와 활용(축산과학원 진현주 박사) ▲재래돼지 사육현황 및 경영실태 조사 결과(축산과학원 전기준 박사) ▲DNA 마커를 이용한 돼지 브랜드 인증 방안(경상대학교 이정규 교수) ▲산우리 흑돼지 브랜드 유통 정착화 방안(한국푸드시스템 김민수 상무) ▲강원도지역 재래돼지 브랜드 돈육 생산 현장사례(강원도 산우리 흑돼지 영농조합 운영배 대표) 등 6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상진 축산과학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소비자들의 고품질 고급육 선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자원인 재래돼지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브랜드 돈육을 개발하고 재래돼지

사육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양돈과 김명직 연구관 041-580-3445>

국회 농해위,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8개 법안 의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과 농협법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의결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단법인인 축산물HACCP기준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게 됐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기준원의 공익적 기능이 더 강화되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한마음 한뜻 영주한우를 명품브랜드로 ...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은 영주시(시장 김주영)와 공동으로 지난 19일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영주한우를 명품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영주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발전 전략'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축산과학원과 영주시와의 축산종합기술지원 MOU 체결에 따른 행사로 영주한우 브랜드 농가와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영주한우 브랜드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 조영무 박사(한우시험장)는 영주한우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명품브랜드로 발전하기 위한 개

선 대책을 제시하였다. ‘우량 밀소 생산 이용과 개량’에 대해 발표한 김시동 박사(개량평가과)는 우수 브랜드육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 암소 개량과 우량 밀소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등급 출현율 향상을 위한 비육기술’을 발표한 권응기 박사(한우시험장)는 최근 연구 개발된 고급육생산 관련 일관사육 비육프로그램, 반추위 보호 아미노산 및 각종 첨가제 급여효과를 소개하여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강수원 박사(한우시험장)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우 TMR 제조 및 이용’에 대하여 발표하며 최근 사료곡물의 주요 수출국들이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주력함에 따라 국내 사료 값 상승이 한우농가의 경영 압박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섬유질배합사료를 제조,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질 자금 조사료 생산 이용’을 발표한 임영철 박사(조사료자원과)는 우리나라 논 면적의 70% 정도가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특히 겨울철 휴경농지를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할 경우 수입 조사료와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이상진 축산과학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축산관련 종사자들이 힘을 합쳐 저비용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축산과학원 최고의 기술을 도입해 영주한우를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한우시험장 조영무 연구관 033-330-0616>

인공수정 이젠 혼자서도 잘해요!

축산과학원 자가 인공수정기술 교육 실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수원

청사)에서 안양축산농협(조합장 권우택) 관내 한우 사육농가 25명을 초청하여 자가 인공수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공수정기술교육은 지난 7월 19일 전국축산협동조합장 초청 간담회 때 축산과학원 홍보관을 방문한 권우택 안양축산농협 조합장이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자가인공수정기를 보고 관내 한우사육농가에 그 기술을 보급하고 싶다는 건의사항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육은 응용생명공학과 박원중 실무관과 축산환경과 정연배 실무관이 ▲인공수정개요 ▲소생식기 구조 및 각 부위별 명칭 ▲인공수정기구의 삽입요령에 대하여 이론교육을 실시한 후 우사 현장에서 한우 실습 축을 이용, 생식기촉진 및 정액주입 요령 등에 대해 자가 인공수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실기교육도 겸해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농가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 인공수정에 대한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직접 인공수정 체험까지 해 볼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다”며 알찬 강의와 실습준비를 해준 축산과학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의: 축산기술지원과 류일선 연구관 031-290-1565>

‘미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농해위 통과

지난 9월 11일 강기갑의원이 국회의원 68명을 대표하여 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이 20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의결됐다.

이로써 이번 결의안이 10월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 2006년 10월 수입이 재개된 이후 2007년 7월까지 총 319건의 검역과정에서 무려 188건(51%)이 불량상태를 보이고 있음에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수입 위생조건 완화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고자 발의됐다.

미국산 쇠고기는 아직 광우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음에도 미국측의 수입 위생조건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되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척추뼈가 1회, 갈비통뼈가 6회, 다이옥신이 1회, 뺏조각이 163회, 이물질이 19회 발견되었고, 2007년 8월 이후에 또다시 갈비통뼈가 3회나 발견되는 등 미국 측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심각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10월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상정 의결하여 감사원으로 하여금 농림부를 감사토록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07우성한마음축제 실시

화합과 단결의 한마당, 2007우성한마음축제 행사 가져



주식회사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10월 3일 대전에 위치한 한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2007 우성한마음축제를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2년 우성사료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이후 2년 마다 실시하는 체육행사로써 그 동안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과 우성 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우성사료 뿐 만아니라 우성양행, 우성운수, 협력회사 임직원들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 팀으로 나누어 열띤 응원전과 함께 다양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성사료는 39년 동안 오직 배합사료분야 한 우물을 고집해온 축산전문기업으로서 축산농가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사료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임직원 모두가 다짐하고 또한 최근 어려운 축산현실 속에서 늘 축산인과 기쁨과 고통을 나누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거듭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고 전했다.

(주)다연산업, 일본 청리농기(주) 이사오 안도 대표 한국방문



일본에서 청리 농기계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이사오 안도 대표가 한국축산현황을 파악하고, 축산기자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다연산업(대표 금재호)의 환풍기, 급수기, 자동목걸이를 수입하고 있는 안도 대표는 초기 다연산업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때에는 품질에 대하여 반신반의하였으나 사용한 농가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농가에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한 목적도 우수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다연산업의 제품을 적극 홍보하고, 2007년 국제축산박람회를 참관하면서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발굴해 내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특히 다연산업의 제품 중 급수기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달리 전기를 이용해 물을 데울 수 있어 소들의 증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도 줄여 주어 목장에 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문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목걸이 또한 개체관리를 원하는 농가의 증가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다. 다소 아쉬운 것은 환풍기로 단가가 일본 제품과 차이가 없어, 가격 인하가 없으면 지속적인 판매 확

대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국산 축산기자재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사람들이 내 물건만 우수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제품과 비교하여 배우고, 품질을 향상시킨다면 한국축산기자재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료 및 기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축산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지만, 한국의 축산의 분명히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즉 일본의 화우도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우수한 육질을 만들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만들어 듯이 한국의 축산도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한다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화성연합검정회 단합대회 개최

화성연합검정회(대표 장완식)는 지난 9월 6일 산들래자연체험학교에서 7개 검정회(경기, 남양, 발안, 양감, 조암, 화성, 화성반도) 회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하여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낙농가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는데 체육대회는 치열한 접전 끝에 양감검정회(회장 이만교)가 우승하였으며, 노래자랑은 화성검정회에서 최우상을 받았다.

(주) 이레



탁동수 대표

최신 나노기술로 친환경
경적 웰빙 축산을 선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
레는 1989년 창립한 이
래 각종 목장용 자동급
수기, 이온급수기, 자가
인공수정기, 양돈분만

예측 및 포유자돈 관리시스템, 축산폐수관련 환
경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로 우리나라 축산발전
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탁동수 대표는 우리나라 축산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축개량을 통한 우수한 유전
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친환경축산을 통한 고
품질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즉 가축개량을 기반
으로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악취를 줄이고 노
동력을 절감하여 생산비를 낮추어야 한다고 전
했다. 또한 정부 정책 담당자들도 축산현대화를
위하여 일부분에 대한 시설지원이 아닌 종합적
인 지원을 해야 한다.

더불어 지원사업 후 즉각적인 결과를 얻으려
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5~10
년 후의 모습을 보고 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이레에서는 가축의 생리작용을 활성
화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생체기능
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이온급수기의 공급 등
친환경축산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ak News NEWS 해외소식

일본,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운동전개

일본 집유조합 총괄기구인 중앙낙농회의는 최
근 사료가격 상승에 의한 우유생산비의 대폭상
승과 이에 따른 우유 소비 침체 등을 적극 대응
하기 위한 '긴급 낙농이해 촉진 생산자 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운동에는 국제적인
유제품 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 상승과 사료가격
인상 등 '낙농업을 둘러싼 위기적인 정세변화'를
광고지나 가두활동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
접 이해를 호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와
병행해 우유판매점이나 생협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회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긴급활동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는 중앙낙농회
의가 작성하여 각 집유 담당조합에 배포하면 각
집유단체에서는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직적으
로 활동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농업신문 9월)

호주, 주요 유업체 잇달아 유대 인상 발표

국제적인 유제품 수요 증가와 유럽연합의 수
출보조금 중지, 호주의 가뭄에 의한 원유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국제적인 유제품 공급량 감소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호주 주요 유업체들
이 잇달아 농가 유대인상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
로 보도되었다. 호주 빅토리아주 유업체들은 최
근 전년 대비 30~33%의 유대인상을 발표하여 1
리터당 40호주센트(315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대 유업체중 하나인 '머레이'사와 '폰테라'사는 35~40%의 유대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유대인상으로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인상이 이어져 일부 유업체는 25%의 가격인상을 단행한바 있으며, 수출 가격도 하반기 계약분이 금년 상반기에 비해 20% 이상 인상된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06/ '07년도 호주 내 우유생산량은 전년대비 5.1%감소한 957만킬로 리터이며, 수출물량도 4%감소한 84만 톤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외 축산정보 9월6일자)

미국, 11월 캐나다산 생우 수입 전면 자유화

미국 정부는 오는 11월19일부터 지난 '03년 광우병이 발생된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왔던 30개월 령 이상된 캐나다산 생우에 대해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캐나다산 생우는 지난 '05년 7월부터 30개월 령 이전 어린소에 한해 미국에 수입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노령우를 비롯한 생우 수입이 전면 자유화 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조치로 광우병 발생가능성은 무시할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광우병 확산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국가간에 공정한 무역촉진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BC News 9월14일자)

인도, 9월중 분유 대외 수출정지 해제 여부 관심

년 간 9천7백만 톤의 원유(물소 및 염소젖 포함)를 생산하여 세계 최대 우유생산국인 인도가 지난 2월9일부터 취해오고 있는 분유 수출금지

조치를 9월말 해제 할지 여부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 2월 유제품 가격상승에 의한 국내 소비자 가격 안정과 흑서기(4월~5월) 생산성 저하에 의한 탈지분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탈지, 전지를 포함한 분유 대외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가공업계에서는 금년 우기에 적당한 강우로 사료작물 생육 조건이 양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원유가 잉여 상태에 있고, 옥수수나 배합사료가격 상승에 의한 농가의 유가 인상 요구가 있어, 고유가를 유지하는 해외가격을 감안하여 즉각적인 수출정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출정지 해제는 국내 유제품 가격 인상을 부추켜 현재의 분유 외 카제인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금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인도정부의 향후 결정여부가 주목되고 되고 있다.

(일본 해외축산정보 9월6일자)

아르헨티나, 우유생산량 감소로 유제품 수출량 급감

아르헨티나의 금년도 유제품 수출물량이 주요 낙농지대의 가뭄과 수해 등으로 목축 생육이 악화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 전년대비 5.7%가 줄어든 17만4천 톤에 불과한 것으로 국가 동식물 위생기구(SENESA)가 발표하였다. 품목별로는 치즈와 기타 유제품의 수출량은 각각 3만1천 톤, 4만3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3.2%, 20.1%가 증가하였으나 분유 물량이 전년대비 17.9%가 감소한 9만8천톤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가뭄 등에 의한 국제 유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금액 면에서는 유제품 수출액이?전년대비 2.3%가 증

가한 4억3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아르헨티나 유제품 수출량의 감소에는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금년 2월부터 도입된 수출세 징수도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해외 농축산정보 8월29일자)

미국, 7월 젖소 미경산우 두수 12년 만에 최고

미국 농무성은 7월1일 현재 미국내 젖소 미경산우 두수가 지난 '89년 이래 최대치인 390만두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두수는 작년에 비해 2.6%가 늘어났으며 최근 3년 연속 증가된 두수이다. 반면 젖소 도축두수는 급감하여 금년 6월 한 달 동안 6천900두가 도축되어 지난해 7월 17만3천두 도축에 비해 출하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젖소 사육 열기는 국제적인 유제품 가격상승으로 미국 내 모든 등급 유가가 22달러에 육박하고 옥수수 가격이 생산량 증가로 하락세가 전망되자 농가들이 젖소 도태를 미루고 목장 최대로 젖소를 사육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Hoard's Dairyman 8월호)

일본, 조사료 증산을 위해 100아르 당 8만원 지원

일본 농수산성은 자급산 조사료 증산을 위해 논뒷그루로 사료작물을 생산하여 축사농가에 공급하는 생산단체에 10아르(300평)당 1만엔(8만1천원)을 직접 보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녹비 작물을 사료로 이용하거나 휴경지를 초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규 지원을 하기 위해 내년도 조사료 증산 예산에 20억엔 이외에 추가로 6억엔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일본은 2015년까지 사료 자급율을 35%로 끌어 올린

다는 목표하에 이중 조사료는 100% 자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06년도 조사료 자급율은 77%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사료 증산 대책에는 전농이나 전축련이 사업주체인 벧짚발효사료 이용확대지원도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농업신문 9월6일자)

세계 곡물 재고율 '07년 말 사상 최저 전망

'07년 말 세계 곡물 재고율이 15.2%에 불과하여 사상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미국 농무성이 발표하였다. 이러한 재고율 감소는 에탄올 수요의 증대에 따른 옥수수 수요 증가와 보리나 쌀의 재고량 축소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농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07년 미국 옥수수 생산량은 3억3천160만 톤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되고, 세계적인 옥수수 생산량도 7억7천150만 톤으로 전년대비 10%가 증가되어, 금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0억 9천100만 톤으로 5%가 증가한 사상 최대 물량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소비량도 전년대비 3%가 증가한 21억 톤으로 전체 소비량에 대한 기말 재고율이 금년말 15.2%에 불과하여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 '72년-'73년의 15.4% 수준을 밑돌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미국내 옥수 재배 면적은 전년비 19%가 증가한 9천290만ha이지만 대두 재배면적은 15%가 감소한 6천410만ha로 집계되어 생산량은 18% 줄어든 7천14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미국 농무성 자료 8월호)

미국, 젖소 생애수명은 저지종이 가장 좋다.

미국 저지협회는 농무성 가축개량평가연구실이 최근 분석한 미국 6개 젖소 품종 생산 수명평

가 결과 저지종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97년부터' 01년 사이에 태어난 346만두의 생산수명 분석결과 저지종은 19만6천 680두 평균이 33.57개월(1천24일)로 다른 5개품종 평균 27.70개월(845일)에 비해 5.87개월을 더 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수명 비교는 자발적인 도태를 포함한 도태 전 착유군에 사육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산유능력검정기록들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868년에 설립된 미국 저지협회는 저지종 젖소에 대한 개체 식별과 능력검정을 전담하며 유전적 개량을 위해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중으로 현재 11만두의 소가 검정 평가 프로그램에 등재되어 있다.

(www.USJersey.com 8월24일자)

호주, 조사료 대신 곡물사료위주 젖소사양 검토

호주 낙농업계가 조사료 및 토지가격이 높아지면서 곡물위주로 젖소를 사양하는 체계를 본격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이를 위해 젖소 곡물급여에 따른 유량증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호주 낙농가들의 곡물 위주 사양으로 지난해에만 사료용 곡물에 5억 호주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최근 가뭄에 따른 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호주 낙농가들은 곡물 위주로 전환 시 유량증대를 위한 최적의 급여량이 어느 정도인지 수익성이 맞는지 가장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BC.net.au 8월20일자)

일본, 된장국 급여로 분만 후 대사성 질환 예방

일본 아오모리현 농림종합연구센터 축산시험장은 최근 젖소의 능력향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사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 분만직후 된장국을 급여하는 것을 포함한 영양보조제 투여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젖소의 대사성 질환은 제4위 전위, 케도시스, 태반정체, 유열 등 분만후빈발하는 질환으로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빈발하며, 특히 체지방의 축적상태를 나타내는 바디컨디션의 적정점수 유지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지침서에는 분만 예정일 7일전에는 칼슘의 흡수 촉진, 면역력 향상을 위해 비타민제를 투여하고, 분만직후 수분 공급과 반추위 용적 확보를 위해 된장국 40리터정도를 급여하는 것이 권장되었으며, 분만후 4일간은 주로 에너지원이 되는 보조 사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되었다.

(일본농업신문 8월29일자)

캐나다, 3대째 정액 백만개 생산 젖소 종모우 탄생

캐나다 개량회사인 '제너베이션' 사가 선발한 '챔피언' 젖소 종모우가 사상 처음 3대째 연속 정액 백만개를 생산하였다고 발표되었다. 지난 7월말 9세11개월령인 이 종모우의 아버지는 유명 젖소인 '루돌프' 이며 할아버지는 '에어로스타' 이고 어미소는 세계 낙농박람회 '인턴미디어트 챔피언'을 차지한 바 있다. 또한 후대검정을 캐나다는 물론 미국, 체코에서 동시에 받아 성적이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02년 8월 생애수익지수 기준 2위로 발표된 이래 8월에는 전체 종모우중 1위를 차지하였고 이후 연속 4차례 최고 종모우 자리를 차지하였다. 한편 현재 이 종모우 정액은 세계 30여개국에 수출되어 3만두이상의 딸소를

생산하였으며 캐나다에만 공식검정기록에 7천 979두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olstein World 8월27일자)

일부 유기농 우유 기준미달 논란

일부 유기농 우유 제품에 대해 불량품 논란이 일고 있다. 포춘지는 4일자 인터넷판에서 소비자들이 건강을 생각하며 매일 마시는 우유를 갠런당 5~6달러의 고가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제품을 찾고 있지만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방농무부는 지난 주 월마트와 코스트코 타겟 세이프웨이 등에 유기농 우유를 공급하는 콜로라도 소재의 오로라 올게닉 데일리의 유기농 우유제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무부는 오로라 측이 농장환경 생산일정 기록보관 등 14가지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콜로라도와 텍사스에서 대규모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로라 측은 규정 위반 사실을 부인했지만 농무부의 시정 행정 명령을 받아들였다. 유기농 제품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유기농 식품생산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성장 촉진제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한다. 지난 한 해 미국내 유기농 식품 시장규모는 167억달러에 달했으며 유기농 산업의 성장세만큼이나 유기농 제품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FAO '가축 품종들 유전자은행에 보관해야'

한달에 1개 품종 꼴로 멸종

소와 돼지를 포함한 전 세계 가축들의 경우 한 달에 한 품종 꼴로 멸종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품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를 유전자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고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3일 지적했다. FAO는 이날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진행된 동물 유전자 자원 관련 콘퍼런스에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그 같이 말하고, 단지 몇몇 종의 가축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대륙의 동물 품종들이 가장 위협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카를로스 세레 국제품종연구소(ILRI) 사무총장은 “놀라운 비율로 가치 있는 품종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은 현존하는 품종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른다”며 “따라서 우리는 현존하는 품종들을 유전자은행들에 보관함으로써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대부분의 농민들이 재래종 가축들을 보존하려는 대책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유럽과 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생산성이 더 높은 가축들로 바꾸고 있어 재래종 가축들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북부 베트남의 경우 전체 암돼지 중 재래종의 점유율은 1994년 72%에서 2002년 26%로 급감했고, 3개종은 멸종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는 품종들이 여전히 가장 많이 남아 있어 앞으로 품종 손실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우 농민들이 생산성이 더 높은 수입 품종들을 크게 선호하고 있지만, 그 것들이 현지 기후, 풍토에 적응할 만큼 강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유럽과 북미 지역의 경우 정부의 정책 및 관계 사육농민들이 대부분의 재래종 가축들을 보존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